

[수필]

## 노크소리



소란스럽지만 어딘가 모르게 고적해 보이는 도시의 구석진 곳곳에서 무심코 들려오는 소리 하나하나가 가끔씩 나의 마음속에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때가 있다.

특히 이따금씩 들려오는 노크소리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 속에서의 간단한 충돌이 아니라 시공을 가로지르는 사신마냥 나를 이끌고 지난날의 기억과 앞날에 대한 동경으로 마음의 문을 가볍게 두드려준다.

어린시절, 나는 농촌의 낡은 초가집에서 살았는데 이웃간의 왕래는 간단하고 아주 순수하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웃간의 가장 따뜻한 인사였는데 밤을 짓다카도 무언가 소요되면 허물없이 찾아오고 작은 농기구라도 빌리러 오는 등 사소한 일들은 당시 이웃 사이의 순박한 인간미를 보여주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노크소리에 아주 민감했는데 누군가 집문을 두드리면 언제나 지체없이 달려가 문을 열곤 했다. 간혹 이웃집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먹을 음식을 건네주면 두 손으로 정중히 받은 후 깍듯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구두에 올라와서 집식구들과 사이좋게 나누어먹었던 기억이 있다.

그 시절에는 집집마다 살림살이는 풍족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이웃간에 오가는 살갑고 순박한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다. 서로간에 나누었던 따뜻한 정은 오랜 세월이 흘러간 지금도 내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으며 그때의 노크소리는 어린시절의 즐거운 노래였고 성장해온 증거였으며 더우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대한 가장 깊은 기억으로 남아있다.

20대 초반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생활해온 지도 어언간 40여년 세월이 흘렀다. 오늘날, 도시의 곳곳마다에는 고층빌딩이 우후죽순처럼 우뚝 솟아있고 철근과 세멘트로 쌓아놓은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으며 생활 조

건도 전례없이 개선되었지만 이웃간의 온화한 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서로가 지척에서 생활하고 있어도 마음과 마음의 거리는 마치 천산만수를 사이에 둔 듯 멀리 있고 가끔씩 들려오는 노크소리도 매우 낯설고 의아하고 신경쓰여보인다.

그럴 때마다 나는 무심코 손에 든 일을 놓고 귀를 쫓긋 세우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서 익숙한 기운을 잡으려고 한다. 일년 내내 밖에서 뛰어나니던 그 이웃이 집에 돌아왔는지, 아니면 가까운 친척이 방문하러 오지 않았는지... 비록 문을 열고 맞이해 보면 대부분은 택배가 아니면 물업회사의 일상적인 자질구레한 문의일 뿐이지만 노크소리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어떤 그리움과 향수로 깊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것은 어떤 로인이 자녀에 대한 깊은 그리움으로 노크소리에 환혼인생을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젊은 부부가 일이 바빠 아이를 돌볼 겨를이 없어 이웃에 아이를 맡겨야 할 때의 믿음과 감사일 수도 있다.

90년대 초반에 나의 신병에서 발생하였던 사연이 30여년 지난 오늘에도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 당시 나는 연길시의 우장거리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침실 창가에 조용히 앉아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책을 보고 있었다. 책장을 펼치는 부스럭소리라는 밖에서 들려오는 별래의 울음소리와 미풍이 살랑거리는 소리와 한데 어울려 마치 대자연이 나를 위해 밤의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나는 책 속에 빠져서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와오자 나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가볍게 책을 덮고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잠결에 초인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꿈속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나름대로 생각하며 계속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귀가에 또다시 초인종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한밤의 정적을 깨뜨리며 들려오는 초인종소리에 조금은 두려운 생각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보았더니 옆집에 사는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어디 갔는가고 묻자 할머니는 그들이 손자를 데리고 사돈집으로 갔다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것은 단순한 이웃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닌 서로 부축하고 난관을 함께 헤쳐나가야 할,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인정세태임을 느꼈다.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옷을

대강 걸치고는 할머니를 부축하여 병원의 급진실로 모셨다. 의사의 진단에 의하면 할머니는 중풍의 전조인데 다행히 곧바로 병원에 왔으니 망정이지 조금만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느껴본 삶의 뿌듯함은 지금도 여전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비록 간단하지만 나로 하여금 이웃간에 인정을 베풀어야 하는 중요성과 이웃간의 따뜻함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하였으며 빠른 절주로 내달리는 사회에서 우리는 여전히 일부 작은 행동을 통해 사랑과 배려를 전달하고 이웃간의 관계를 더욱 조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게 하였다.

시대의 빠른 발전과 더불어 압력과 과중한 현실에서 우리는 이미 고독과 랭담함에 습관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순수한 감정적紐帶는 마땅히 노크소리 속에서 조용히 연결되어야 하며 더욱 귀중한 것은 서로의 배려와 따뜻함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듣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동적으로 이웃을 집에 초청하여 손님으로 모시고 차 한잔 마시며 한담을 나누는 시간적 여유를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웃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작은 행동이라도 도움을 손길을 내밀어 본다면 이웃간의 인정은 더한층 깊어지고 돈독해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많은 이야기 속의 방산의 일각일 뿐이지만 바로 이런 보잘것 없어보이는 작고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귀중한 기억과 감정 교류의紐帶로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매번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행동으로 노크소리를 느끼면서 이웃간의 따뜻함과 배려에 보답한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더없이 유익한 밑거름으로 될 것이다.

가정에서는 친정이고 사회에서는 우정이다.

문학가장 고리끼는 진실하고 리지적인 우의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배라고 말했다.

혁명도시 맑스는 우정은 충성으로 파종하고 열정으로 관개하며 원칙으로 배양하고 량해로 호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정은 화목을 조래하고 화목은 만복의 원인이다.

우정은 인생의 다리이고 배이다. 인정은 사회를 단합시킨다. 인정은 력사 발전의紐帶이다.

꽃은 열매를 맺고 잎을 떨어뜨린다. 신진대사는 천도이고 자연법칙이다. 우리도 레위가 아니다. 식후 소화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

나는 락화 하나를 주여 일기책 갈피에 소장하였다.

태승호

[시]

송미자

### 풍경소리는 자유의 노래 ( 외 1 수 )

내 창문 카텐을 열 때면  
풍경소리 귀맛 돋군다  
자유롭게 흔들며 울리는  
바람의 멜로디

풍경소리로 뇌리를 씻었나 보다  
씻기운 뇌는 망각으로  
투명해졌는가  
쌀 씻는 것도 잊고  
마른 쌀을 솥에 안쳤다  
전원을 눌렀다  
밥이 될가  
쌀이 될가

다행히  
주말이다  
더 행운스러운 것은  
남의 편이 출장중이라는 것

밥이 되든 쌀이 되든  
나 홀로의 아름다운 자유

내 뇌리에 뇌수가 아닌  
해살이 샘물이 되어  
흘러드는 아침  
풍경소리, 자유의 코노래  
즐겁다

#### 첫사랑

은빛 장도가  
하늘땅 사이를 가르는  
우뢰소리에 놀라던 봄날

첫 우뢰 울어 백일이면  
뜻옥수수 삶아 먹는단다  
바람 불고  
해빛 뜨겁고  
비물에 젖고

기다리는 동안  
옥수수가 영군다  
내 가슴을 내리치는  
비발은 몇번이고  
내 고막을 울리던  
소리는 몇번이었나

알은 찌어도 아직은 어린  
뜻옥수수 그 맛 향기롭더라  
맛의 계절은 짧기도 하다  
수분이 휘발하는 아쉬움  
마른 대에 매달려 팽팽 영글어  
나중에 찹알이 되었어도  
한여름의 번개와 우뢰를  
품고 있을가  
뜻옥수수 한철이 그림기만 하다

[수필]

리춘자

## 엄마의 꽃밥통

1966년도에 아버지가 부대에서 전업하여 돌아오자 정부에서는 한 공장의 책임자로 배치하였다. 책임을 맡은 아버지는 공장의 생산을 일떠세워보려고 새벽에 나가면 저녁 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상해, 북경 등 외지 출장도 많았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을 할라, 집안일을 할라, 여러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시킬라... 팽이처럼 분주히 돌아치면서 살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상해로 출장간다고 했다. 연길에서 상해로 가자면 그 시기엔 완형렬차를 타고 며칠씩 걸리곤 했다. 열차의 침대표는 비싸고 살 엄두를 못 내고 좌석파자도 종중 없을 때가 많아서 열차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갈 때도 많았다. 한번은 어쩌다 좌석표를 끊을 수 있게 되어 곁상에 앉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점심때가 되자 열차 사업일꾼이 해바라기씨며 얼음과자, 삶은 달걀, 과자 등을 밀차에 싣고 다니면서 팔았다. 함께 간 동료들은 여러가지 간식들을 사느라 바빠 보냈지만 아버지는 창가에 몸을 기대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자는 척하였다. 동료들이 아버지에게 점심을 드시지 않는가고 물었고 아버지는 배에서 포르륵 소리가 연해연방 났지만 배고프지 않다고 말했다. 동료들이 건네주는 빵도 미안하고 썩스러워 밀쳐버렸다.

이렇게 하루밤 좁은 창고 지냈으나 이튿날부터는 물로 배를 채우며 다녔다. 출장 나가면 단위에서 출장 경비를 몇원씩 주는데 아버지는 그 경비를 아껴 살림에 보태려고 그랬던 것이다. 아버지 혼자 로임으로 여러 자식들을 키우고 적잖은 천적들까지 돌봐야 했으므로 우리 집은 그 시기 생활형편이 어려웠다.

그때는 집집마다 찬장 우에 꽃대야와 꽃밥통을 엮어 집을 장식했는데 녀성들의 희망이고 자랑이기도 하였다. 집문을 열고 들어서면 첫 눈에 보이는 찬장 우의 꽃밥통들과 함께한 것 같지만 더 좋은 열매를 위한 힘든 버림이었다. 내 마음에도 결가지가 많은지 모르겠다. 아파도 잘라내고 더욱 탐스러운 열매를 얻어야겠다

당신은 그것 하나 사오지 못합니까? 어머니는 늘 아버지에게 지청구를 들이댔다. 아버지 혼자 로임에 술한 식솔이 붙어 살아가는 구차한 살림이라 배불리 먹기도 힘든 상황에 아버지인들 어찌 생각이 없었겠는가?!

아버지는 “그 비싼 걸 사서 뭘하오? 밥이야 아무 그릇이나 담아 먹으면 되지...”라고 에둘러 대시곤 했다.

얼마후 아버지는 또 출장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출장길에 함께간 동료 아저미와 아저씨는 일이 끝나자 상점에 가서 꽃밥통 하나씩 사면서 아버지 보고도 하나 사라고 강권하였다. 세분이 똑같은 꽃밥통을 한개씩 사가지고 돌아왔다. 아버지 손에서 꽃밥통을 받아안은 어머니는 소녀처럼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어쩌다 이렇게 큰일을 다 하시었다면서 좋아했다. 첫 며칠 어머니는 그 꽃밥통을 보배처럼 애지중지하시며 아까워 쓰지도 않았고 매일 알뜰알뜰 닦아서 찬장 우에 얹어놓고는 보고 또 보았다.

어머니는 우리 집에 놀러 오는 사람한테 “우리 연길에는 이런 꽃밥통을 파는 것이 없습니다. 몇십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이쁜 꽃밥통은 처음 봅니다.” 하며 자랑하였다.

후에는 꽃밥통에 감자밥이며 옥수수밥을 담아먹었는데 그 밥통에 밥을 담아먹으면 맛이 다르다면서 밥통이 밥상에 오르기 바쁘게 굽을 내곤 했다.

세월이 흘러 딸들도 다 시집가고 여러가지 형형색색의 밥통같은 식기들을 많이 사들였지만 엄마는 그 꽃밥통을 보배처럼 그냥 찬장 우에 얹어두었다. 이사를 하면서 인젠 법랑칠도 다 떨어지고 낡았는데 버리자고 우리가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죽기 전까지는 누구도 그 꽃밥통을 다칠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엄포를 놓았다.

우리 온집 식솔이 몇십년을 동반해온 꽃밥통, 아버지와 어머니의 잊지 못할 추억이 깃들어있는 물건이어서인지 우리도 그것을 주방의 제일 꼭대기에 보배처럼 모셔놓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과 고생이 담긴 그 밥통 안에는 출장길에 아버지가 돈을 아끼느라 포르륵하는 배고픔을 참고 견뎌던 그 시절의 소중한 이야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활짝 피어나 예쁘던 꽃이 어느덧 락화하니 세월의 무상함에 허전함을 금할 수 없으나 락화가 암시하는 철리에 인생을 반추해본다.

떨어진 꽃잎은 고아한 본색을 잃지 않았다.

우리는 종점까지 초심을 간직해야 한다.

초심은 생명을 연장하는 인력이다. 초심을 잃으면 생명은 낭떠러지에 추락된다.

초심은 행복의 원천이다.

초심은 우리를 분발케 하여 가치를 실현하게 한다.

가치 실현이 바로 행복이다.

꽃잎은 조용히 떨어져 비료가 되고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우리는 부모님께 극진히 효성해야 한다.

도덕은 언행과 처사의 준칙이고 선

[산문]

안부길

## 락 화

량함은 도덕의 핵심이며 효성은 백성지효이다.

효성은 인성의 근본이다.

부모의 낳은 정은 천성적이고 자식의 효성은 후천적이다. 생육정은 무의식적이고 효성은 의식적이다. 생육정은 자연적이고 효성은 의식적이므로 수심(修心)으로 이뤄진다. 부모가 자식을 열변 생각할 때 자식이 부모를 한번 생각해도 효자라고 한다.

꽃벌 한눈이 날아와 떨어진 꽃잎에 살포시 앉았다.

- 나에게 무상으로 화밀을 제공해준 너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



꽃벌은 감지덕지하며 고마움을 금하지 못한다.

- 너의 은덕에 수분하여 열매를 맺게 되었어.

꽃잎 역시 자못 감개무량하다.

[시]

문정

### 인생은 꽃밭 ( 외 2 수 )

####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서로 정을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으로  
아름도 나누어 줘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면  
선뜻 어깨를 내여주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순수건 하나 건네줄 줄  
아는 사람들

무릎 아프다면  
자뺨이 꺾여주고  
울고 싶을 때는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

우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빛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도마도 인생

썩썩하게 자라는 도마도의 순을  
썩둑 잘라버린다

가혹한 것 같지만  
더 좋은 열매를 위한  
힘든 버림이었다

내 마음에도  
결가지가 많은지 모르겠다

아파도 잘라내고  
더욱 탐스러운 열매를  
얻어야겠다

산다는 게  
크고 작은 유혹이  
들쭉날쭉 피어난 꽃밭  
거니는 일이다

한송이 꺾으면  
또 한송이 꺾고 싶다  
비바람 눈보라 속에서도  
자꾸 꺾어보겠다고  
발버둥친다

고개 들어보니  
어느새 날이 저무는데  
석양 아래 아직도  
꽃들이 지천으로 깔려있다